

광주 복구청장 文-협 단일화 끝내 무산

6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 시 복구청장 경선주자인 문상필, 조 오섭 예비후보 간 단일화가 끝내 무산됐다.

민주당 복구청장 경선은 다시 3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구도상 북갑 대 북을, 강기정 대 이용섭 대리전 양상이다. 단일화 무산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언급돼 후유증도 예상된다.

26일 문상필, 조오섭 예비후보 측

여론조사 갈등 봉합 실패... 단일화 '없던 일'

북갑 vs 북을 이용섭 vs 강기정 대리전 양상

에 따르면 양측은 후보적합도 여론 조사의 기법과 과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기 위해 수차례 조율작업을 거쳤으나, 입장차가 워낙 큰 데다 감정의 골도 깊어져 결국 단일화를 포기했다. 단일화 작업은 10여 일만에 백지화됐다. 경선후보 공보물 제출시한이 이날 오후 3시여서 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었으나

결국 무산됐다. 조 후보는 오는 28일 사무실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고, 문 후보도 "초심으로 뛰겠다"며 한동안 중단했던 홍보성 문자메시지를 다시 발송하기 시작했다.

두 후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J사와 S사 등 2곳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사흘동안 후보적합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조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에서 높게 나왔다. S사 여론조사에서는 둘다 소숫점까지 일치했으나 J사에서는 조 후보가 앞섰다.

이에 문 후보가 '샘플미달' 등을 이유로 불복하면서 단일화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고 문 후보와 여론조사기관 측은 상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두 후보 모두 고교 동문으로, 학생운동권과 재선 시의원 출신이어서 단일화 무산에 따른 비관 여론은 불거질까봐 보인다.

단일화 무산으로 민주당 복구청장 경선은 두 후보와 문인 전 광주 시 행정부시장 간 3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국회의원 지역구로 볼 때 단일화 추진 두 후보는 북갑, 문 전 부시장은 북을이고, 지지성향으로 보면 북갑 강기정 전 의원과 북을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 간 대리전 양상이 예상된다.

북을 지역표가 문 전 부시장으로 향할 지, 단일화 무산으로 위기감을 느낀 문상필-조오섭 지지층이 오히려 표 결집에 나설 지 관료와 정치인 간 대결에서 누가 웃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견 나누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국회의원 후보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국회의원단 선거관리위원회 강창일 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내달 16일까지 20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한다는 방침에 차기 국회의원 후보들인 문화상(6선·경기 의정부갑) 박병석(5선·대전 서갑) 원혜영(5선·경기 부천을) 의원을 만나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영록 민주광산구청장 예비후보 "4파전 승리 확신"

장성수 전 후보, 선대본부장 수락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 경선이 3파전에서 4파전으로 확대된 가운데, 김영록 예비후보가 장성수 전 예비후보의 선대본부장 수락으로 지지세 확신을 자신하며 "경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선일까지 남은 일주일여 동안 강점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데 집중하겠다. 70만 생산 소비 자족 도시 광산 건설을 위한 정책과 진정성을 선보이겠다"며 이 같이 전했다.

김 예비후보는 "그동안 경선 후보로 뛰었던 장성수 전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기

로 했다"며 "다자구도 경선에서 반드시 승리를 일궈내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광주시장 경선에서 진행된 단일화의 예로 볼 때 인위적인 단일화는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결론났다"며 "개인의 경쟁력이 결국 선택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만큼 '경제전문가'라는 강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경선 컷오프 재심 결과가 나오기 전 윤봉근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했다가 이를 민에 백지화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후보 경선은 김영록·윤봉근·윤난실, 김삼호(재심서 구제) 등 4명이 치른다.

임형택 기자

나경재 정의당광주시장 후보 '5·18분수경제' 제안

나경재 정의당 광주시장 후보가 광주경제의 해법으로 5·18 분수경제를 제시했다.

나 후보는 2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이식하거나 대규모 공사를 통해 뚝거나 쌓아 올리는 토건식 경제개발은 더 이상 선택지도 가능하지 않다"며 5·18 분수경제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사람에게 직접 투자하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보는 경제정책을 통해 선순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5·18 민주광장에서 솟아오르는 분수처럼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 골고루 퍼지는 선순환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의 이택복 경제, 노무현 정부의 북북이금융허브와 자유무역,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프랜차이즈,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

제와 재벌과 외국자본을 지원 유치하면 인젠가는 중소기업과 노동자, 서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나 수경제론은 폐기할 것을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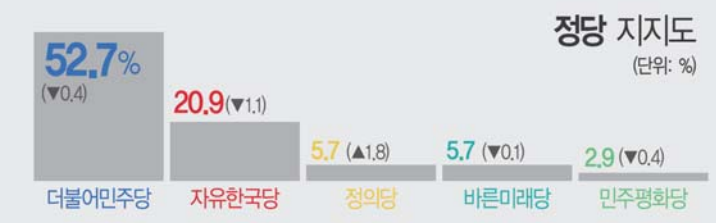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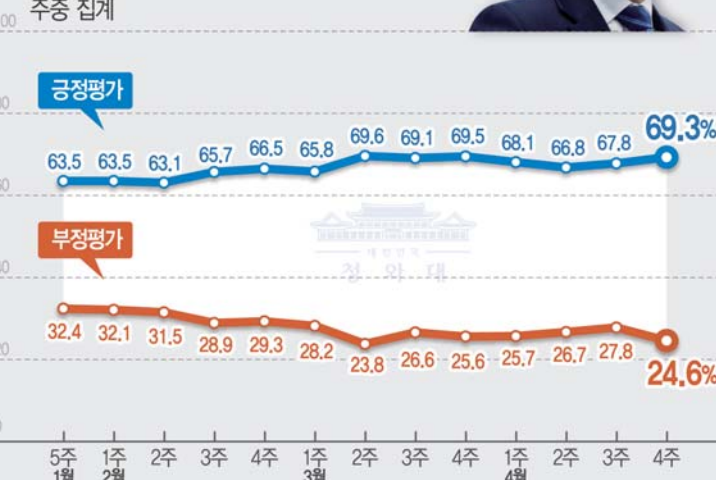
나 후보는 "기업에 대한 우선투자에서 사람에게 직접 투자하는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며, 떨어지지 않는 낙수를 기다리는 대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 골고루 퍼지는 분수경제를 실현할 때"라며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5·18분수경제위원회를 설치해 경제주체·경제전문가·시민사회와 함께 5·18분수경제 총괄기구를 운영하겠다"며 "5·18 분수경제 실현을 위한 광주시 경제실태조사, 노동자·농민·영세상공인의 경제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5·18분수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4월23~25일 전국 성인 1502명/6.2%의 응답률 표집오차 ±2.5%p(95%신뢰수준)/의뢰기관: tbs (단위: %)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3~25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502명을 조사해 26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주간집계 대비 1.5%p 상승한 69.3%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69.3%' 남북 정상회담 기대감 1.5%p↑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 23~25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69.3%로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1.5%p 올랐다고 26일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지 선언과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정상회담 관련 보도 확대로 최근 오름세였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민주당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폭행 사건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으로 소폭 하락했다가 정상회담이 가까워 오면서 다시 오르는 모습이다.

세부 계층별로는 호남과 대구·경북(TK), 충청권, 60대 이상 사회와 함께 5·18분수경제 총괄기구를 운영하겠다"며 "5·18 분수경제 실현을 위한 광주시 경제실태조사, 노동자·농민·영세상공인의 경제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5·18분수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리얼미터는 "이는 남북정상회담 관련 보도가 확산하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전통적 지지층이 결집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2.7%로 0.4%p 내렸다. 자유한국당 역시 TK와 PK, 진보층과 보수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이탈하며 1.1%p 하락 20.9%를 기록했다.

TK와 호남, 30대, 진보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결집한 정의당은 5.7%로 1.8%p 올랐다. 바른미래당은 5.7%로 0.1%p 하락했다. 민주평화당은 호남, 20대와 30대, 진보층에서 이탈하며 2.9%로 0.4%p 떨어졌다.

이번 지지도 조사는 유권자 2만4340명에게 통화를 시도, 최종 1502명이 답을 해 6.2%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